

문예통신

민족문화예술운동을 활성화하자!

발행: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2(2013)년 9월 9일
제2호

건국절 65돐을 빛내인 197명의 무대 제8차 문예동무용경연대회



국창건 65돐을 뜻깊게 경축하게 되었으니 나는 저절로 뜨거운것이 북받쳐오르는것을 억누르지 못했다.

동포사는 곳곳마다 민족무용의 화원을 크게 펼쳐 동포사회에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민족성고수의 일익을 훌륭히 담당해온 무용부맹원들.

1세대들이 쌓아올린 민족무용의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기 위해 민족무용발전의 일점

에서 광범한 무용가들과 련계를 맺고 대를 이어나갈 후비들까지 크게 망라하여 진행된 제8차 무용경연대회.

아무리 정세가 어렵다 한들 조선무용의 기치 아래 마음을 한데 모아 민족성이 차고넘치는 흥하는 동포사회를 꾸리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계속 분발할것이다.

이번 경연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전체 출연자들과 무용부역원들, 개최지인 총련 아이씨현본부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문예동중앙 무용부장 임수향

한여름의 찌는듯한 더위보다 더 뜨거운 조국사랑, 민족사랑의 마음을 무용에 담아 문예동 각 지부들의 무용부맹원들과 애호가들, 조선무용연구소에 다니는 학생들이 나고야에 모였다.



학생부문 49명, 성인부문 148명 모두 197명이 펼친 자랑찬 경연의 무대!

일본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활동하는 저희들을 민족무용의 한길에로 따쫓이 손잡아 이끌어준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가슴에 안고 북은 흑가이도로부터 남은 후꾸오까에 이르는 무용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화



제8차 무용경연대회 출연작품중에서

문예동 도교지부 《온세상에 만발한 김일성화》



문예동 니시도교지부 《사당춤》

문예동 흑가이도지부 《조개춤》

문예동 도까이지부 《<시향가>어머니의 마음》



문예동 오사까지부 《무녀춤》

문예동 효고지부 《삼색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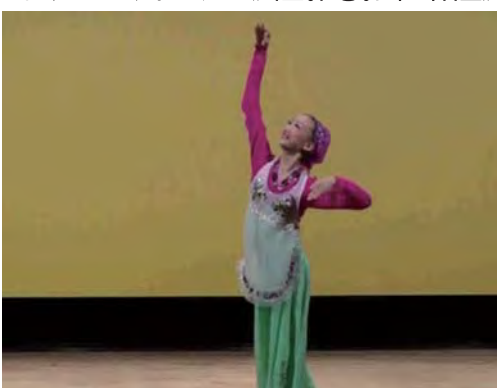
문예동 교또지부 《나의 사랑 나의 행복》



문예동 후꾸오까지부 《행운》

강희선조선무용연구소 《나도야 병아리 키워요》

<춤>무용교실 《직포공의 마음》



리미남조선무용연구회 《패랭이춤》

조선무용교실<무희> 《직포공의 마음》

조선무용교실 미용 《기쁨》



조선무용교실<이쁜이> 《복춤》



조선무용교실<하나> 《소고춤》



마이조선무용연구소 《도라지》



오까야마조청무용소조 《박편놀이》



김영란무용연구소 《청풍명월》



<무희>히메지조선무용교실 《랑부재춤》

공연안내



KAMULIVE Vol.2

2013年10月5日(土)
会場: K-Stage0! (新大久保 K-SQUARE 3階)
1部 開場 13:30 開演 14:00
2部 開場 18:30 開演 19:00
チケット: 3000円

재일동포사회에 우리노래를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할 희망을 안고 도쿄조선태극단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CD의 출판을 기념하는 공연.

조청, 청상회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연복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즐길수 있는 가무공연이다.

問い合わせ: 東京朝鮮歌舞団 (03-5615-3342)

劇団アランサムセ結成 25周年記念作品 ハモニカ長屋のどぶろくブルース



2013年10月24日~27日
会場 TINY ALICE
前売 2500円 当日 2800円
学生 2000円

극단이름에는 재일조선인 3세대의 삶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창단이래 25년의 력사에서 3세대가 무대위에 오른것은 한작품뿐이었다고 기억합니다.

2년만에 상연하게 되는 신작무대에서는 극단이름 그대로 3세대(혹시 4세대?)의 삶, 갈등과 리상과 현실의 카오스가 그려질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막걸리, 마시여 잊어버리냐? 잊은것을 상기하냐?

問い合わせ: 劇団アランサムセ (090-4415-0339)



연蓮 福岡朝鮮歌舞團 舞蹈公演

2013年10月5日(土)
会場: 大博多ホール
1回目 開場 13:30 開演 14:00
2回目 開場 17:30 開演 18:00
前売: 3000円 (高校生以下) 1500円
当日: 3500円 (高校生以下) 2000円

이역땅에서도 민족의 긍지를 안고 조선의 춤을 추는 기쁨을 새기며 세상에 자랑하는 전통무용의 세계를 무대가득 펼친다.

問い合わせ: 事務局 (090-6454-4039)

第9回 民族舞蹈の夕べ(特別公演)

현계광의 무용세계 2013年11월15日(金)
会場: サンパル荒川 開場 18:00 開演 18:30
全席自由席 3500円 (一部招待席有り) 学生 1500円 (高校生以下)
当日券 3800円
※ 収益の一部は、東北朝鮮学校に寄付致します。

공화국공훈예술가이며 이전 문예동중앙 무용부장으로 수 많은 무용작품을 창작 발표해 온 《현계광의 무용세계》

《동일본대진재》를 형상한 신작무용작품이 기대된다.

問い合わせ: 代表 桂まで (090-4955-3196)



수기 잊지 못할 조국방문의 나날에

김남조 (문예동교도지부 무용부맹원)

나는 이번 여름에 《문예동기량전습단》으로 조국을 방문하여 난생처음으로 조국의 이름난 무용가선생님들의 지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내 나이 66살입니다. 남들은 이 나이에 무슨 조국에서의 전습이냐고 비웃는지 모르지만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제 8차 무용경연대회에서 《청춘의 기쁨》

나와 무용과의 만남

50여년전, 교포종교에 다니던 나는 처음엔 미술소조에 들어갔으나 미술부선배들이 집단적으로 귀국하여 미술부는 자연 소멸.

나는 새로 무용부에 들어가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청활동을 시작한 17살때 중앙예술경연대회에서 자기가 창작한 무용 《물동이처녀》의 춤을 추었는데 뜻

밖에도 2등이란 성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선무용에 매력을 느끼고 한창 춤을 추기 시작한 19살에 결혼, 그렇게 즐기던 무용을 단념하고 시집살이의 고생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기업을 일으켰지만 사업의 실패로 남은 부채... 더우기 남편의 사망 등으로 우여곡절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60고개에 들어선 어느날, 크게 자란 아이들이 한 말 《어머니, 이제 우리 걱정은 말고 자기의 후회없는 인생을 걸어주세요.》

나는 서슴없이 문예동무용교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나이 62살때의 일이지만 나이에 관계없이 다시 무용을 시작하게 된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예동중앙무용부가 2년에 한번씩 기획하는 《문예동무용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군무 《무궁의 사랑》, 《부채춤》등을 추게 되었고 올해 경연대회에서는 독무 《청춘의 기쁨》을 추었습니다.

66살에 《청춘의 기쁨》을 춘다는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문예동무용부에 속하여 활동하고있는 오늘이 바로 청춘을 되찾은 기쁜 나날이기 때문입니다.

꿈같은 배움의 나날

문예동이 해마다 여름에 기량제고를 위한 조국방문을 조직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속에 《나도 한번 조국에서 배워보았으면!》 이런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딸에게 하니 《어머니 간다면 언제 갑니까? 지금이지요.》 가족의 따뜻한 전송을 받고 나



조국선생님들과 찍은 사진

는 조국을 향하여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조국에서의 무용전습, 나는 제 나이도 아랑곳않고 기본동작과 작품을 배우느라고 땀을 뻘었습니다.

《조선무용연구소》의 박룡학선생님, 《국립민족예술단》의 오경순선생님, 조국을 대표하는 무용가선생님이 조국방문기간 따뜻한 혈육의 정으로 수준도 어린 나의 손을 잡고 극진히 지도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격의 나날이었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앞에서

조국방문의 나날에 나는 10만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최승희창작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를 관람할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위대한 조국의 모습에 북받치는 감동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예술이 흥하면 나라가 흥한다는 말 그대로 나



는 조선의 밝은 래일을 보았습니다.

고생속에 살아오면서 이제는 절대 울지 않겠다, 어떤 슬픔과 시련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겠다고 살아온 나였지만 이때만은 몸이 떨리고 흐르는 눈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나는 《금수산태양궁전》앞에서 일본에 돌아가서도 조국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만수대언덕우에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새로이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나의 어머니가 생활이 어려워 형제중 나만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었는데 50년 전 우리 학교에서 무용을 만나게 해주고 오늘과 같은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솟구쳐올랐습니다.